



조계종 교육원은 7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의 '대령소' 시연 모습.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원 학인 스님들의 '영가 전에 경전합송'.



청암사승가대 학인 혜강 스님의 랩 반야심경. 대중 호응은 최고였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의 '불러요 다라니' 시연 모습.



승가대학 간 열린 응원전도 이번 대회의 볼거리였다.

한 여름, 학인 스님들의 염불에 매료되다

조계종,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 대상 보경 스님·청암사승가대학

“젊은 그대들이여! 이 세상은 무한한 에너지요, 중생들의 수행마다!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흐르며 희망 속에 있느니라.”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고우 스님의 창작염불 중〉

일선 사찰에서 흔히 듣는 염불 의례가 아니다. 내용도 어려운 한문이 아닌 순 한글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발원들이다. 형식은 파격이다. 세속의 대중음악과 염불이 자유롭게 크로스 오버되며 어깨춤이 절로 들쭉이게 한다.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세대 스님들이 하면 랩도 염불이 된다.

염불 대중화의 다양한 시도를 7월 17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는 보여줬다.

종단 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학인염불시연대회는 전국 15개 승가교육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오전 예심을 거쳐 본선에 개인 12명(사미 6명, 사미니 6명), 단체 8팀이 진출해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당초 대회는 총무원 지하 공연장 실내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승가대학 학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조계사 야외의 특설 무대로 자리를 옮겨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사미니 스님의 창작염불 호응 최고

오후 2시 시작된 본선은 사미·사미니 스님이 뚜렷한 경향 차를 보였다. 사미 스님들이 전통 염불 시연에 중점을 뒀다면 사

미니 스님들은 창작 염불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에 임했다.

특히 사미니 스님들의 창작 염불은 신세대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처음으로 시연한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고우 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소통의 발원문’을 창작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대중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으면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고우 스님의 창작 염불은 문답에 강약을 뒤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했고, 현대적인 리듬을 가미해 눈길을 끌었다.

6번째 시연자로 나선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혜강 스님은 전통 염불과 랩이 어우러진 새로운 반야심경을 시연했다.

“아~ 마이크 테스트합니다”라며 발랄하게 등장한 혜강 스님은 바로 “편하게 손뼉 치세요”라고 대중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랩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광장한 지혜, 완전한 지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법문. 관자재보살님 완전한 지혜 향해 수행할 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각, 나라고 할만한 것 없다는 것 바로 보시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셨다구.”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경 스님은 광명진언과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을 창작 염불로 묶어내 눈길을 끌었다. “움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를 타야 흠”의 광명진언에 이산혜연선사발원

문이 믹스되니 요즘 말로 ‘중독성’이 높은 염불로 재탄생하게 됐다.

아예 어린이·청소년용 염불을 새로 만들어 시연하는 단체도 있었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은 ‘불러요 다라니’라는 제목의 창작염불을 시연했다. 기존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양장맞은 바라 울동과 쉬운 운율을 가미해 누구나 즐겁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15개 승가 교육기관서 300여명 참가
예심통해 개인 12명, 단체 8팀 진출
램 이용한 창작 염불 등 새로운 시도
일반인 이목 집중...염불 대중화 기대

본심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마타부처님을 만나 극락세계로 간다는 내용으로 ‘임종염불컬’을 준비해온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은 별도로 시연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수상 결과에도 창작염불은 강세였다. 4시간여의 경합 끝에 대상에는 개인 부문 운문사 승가대학 보경 스님(광명진언+이산혜연선사발원문), 단체 부문 청암사 승가대학(불러요 다라니)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와 단체에는 각각 상장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에는 개인 부문 청암사승가대학 고우 스님(2600년 전 부처님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소통의 발원문)과 송광사 승가대학 혜공 스님(복정계)이, 단체 부문에는 운문사승가대학(대령소- 차어, 전령

계)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설정 스님 “염불발전위원회 만드자”

학인 스님들의 불교의례의식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하고 염불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학인 스님들의 열정에 감탄했다.

시연대회의 고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덕승총림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은 “염불은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이라는 견성의 가치를 이루는 방법이자 불교문화의 꽃”이라며 “오늘 시연대회는 옛 것과 창작이 잘 어우러져 앞으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음을 가늠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종단에서 ‘염불발전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위원회는 어산 스님을 중심으로 고전, 시, 국문학 전문가들로 구성해 옛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염불을 창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은 “아직 염불이 성급치 않았지만 학인 특유의 풋풋함이 살아있어 보기 좋았다”면서 “학인들의 시도처럼 전통과 창작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면 한국불교의 염불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염불은 출세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한다”면서 “대회를 계기로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생활 화해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상 수상자 인터뷰

“모든 것이 도반 스님 덕분입니다”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경 스님



이 높은 광명진언에 빠른 템포로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이 엮여 내니 몰입도가 높아졌다. 실제 경쾌한 염불과 북소리에 대중들은 시종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꾸준한 연습에 매진했다. 대상 수상의 기쁨에 상기된 스님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수행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회 대회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수상할 것으로 생각 못했는데 막상 수상하니 매우 기쁩니다.”

광명진언과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을 섞어 새로운 형식의 염불을 보여준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경 스님(사진)은 대상 수상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경 스님은 이번 창작 염불의 특징을 ‘중독성’이라고 했다. 애초 중독성

우리가 즐거워야 대중도 즐겁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사진)은 시종일관 유쾌했다. 수상직후 기념촬영에서도 ‘긍정 에너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신나고 즐겁게 하자”는 게 우리 팀의 모토입니다. 결과가 어쨌든 신나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했습니다. 우리가 신나야 재가자들도 쉽게 염불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의 스님들이 한 몸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창작 염불 기획은 3달 전에 시작했고, 연습은 매일 3~4시간 씩 2달에 걸쳐 이뤄졌다. 청암사승가대학 참가자들이 색다른

창작염불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학인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의 배려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다음 시연대회가 열린다면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염불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청암사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처님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염불을 창작하고 싶습니다.” 신성민 기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불만



천혜의 명당(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제]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제로 혐오감이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게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이 어떠한 광물결이나 화학물질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불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별초, 성묘, 제사 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왕생 발원, 잘못될 무지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 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제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 IC에서 2km 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 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장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례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